

그리스도의 마음, 언더우드가(家)의 심정 - 내한선교 140주년을 맞아 -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338장 다함께

1.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 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2. 내 고생 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3.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4.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 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 도 맡은이

성경봉독 마태복음 9:35~38 다함께

³⁵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³⁶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³⁷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³⁸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I 삶 나누기

한 주간의 삶과 QT,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간단히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언더우드가(家)의 심정

- 내한선교 140주년을 맞아 -

2025. 4. 6. 주일예배 설교

지난 4월 5일은 새문안교회를 세운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땅에 들어와 선교를 시작한지 정확히 14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며 이번 구역공과를 통해 언더우드 목사님의 행적과 정신, 그리고 4대에 걸친 언더우드 가문의 한국 선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5~11절)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사도신경 낭독하듯,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며 불렀던 <그리스도 찬가>가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 이것은 단순한 찬가가 아닙니다. (1)우리가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2)그 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사셨고 죽으셨는지, (3)그 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6~7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본래는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권위와 권능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사람들과 같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 (8절)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 모든 권능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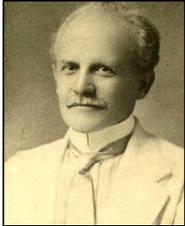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수의 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흔들립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36절) 여기 “불쌍히 여기다”는 표현은 헬라어 <스플랑크노조마이>인데, 이 단어의 어근은 여성의 ‘모태’를 가리킵니다. 여자가 출산할 때 겪는 고통, 그러한 고통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인간을 향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절한 사랑과 희생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 2:5),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영성입니다.

※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영성입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인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당시에는 가난과 무지의 땅이요 은둔의 나라였던 조선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첫 걸음을 합니다. 그곳에 가면 파혼하겠다는 약혼녀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어코 이 작은 나라를 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바로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4대에 걸쳐 같은 마음으로 이 조선 땅, 한국을 섬겼습니다.



언더우드 1세 - 원두우 (1) 새문안교회 창립자 언더우드. 한국 이름은 원두우, 고종황제가 지어준 이름이다. 그가 처음 조선에 발을 디뎠을 때, 당시 조선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하고 암담한 땅이었다. 1885년 조선에 도착하고, 새문안교회 창립 외에도, 성경 번역, 기독교민단체와 학교 설립 등 많은 사역을 했다. 찬송가 번역 사업도 해서, 한국교회가 애창하는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등 13곡의 찬송가를 번역했다. (2) 1886년에는 ‘언더우드 학당’ 이라는 고아원을 세우는데, 지금의 경신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전신이다. 이곳에 고아를 데려다 먹이고, 新학문과 성경을 가르쳐주었다. 한 번은 4살짜리 아이가 찾아왔는데, 당시 학당은 8세 이상만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를 돌려보내게 된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아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가 심한 열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애절한 마음이 들어 찾아가보니, 정말 병풍 뒤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언더우드는 그 아이를 데려와 밤낮으로 돌봐주고, 마침내 기적적으로 살아난다. 이 아이가 새문안교회가 사랑하는 독립운동가 우사 김규식이다. (3)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일어나자, 고종은 두려움에 밤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 때 언더우드가 호위무사로 자처하며 허리에 칼을 차고 침실을 지킨다. 아무리 동기가 옳아도 목사로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아니다. 이를 언더우드도 잘 알고 있었을텐데, 그런데도 한다는 것은, 이는 자기를 부정한 것이다. 일제에 유린당하고 고통 받는 식민지 백성의 아픔을 보고, 그들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던 것이다. (4) <카스라-테프트 밀약>으로 조선은 일본에 넘어가고, 그때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정치에 입을 다물게 되는데, 언더우드는 죽을 때까지 조선 편에 섰다. 1917년 그의 나이 5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새문안교회가 그의 묘비를 세워주려 하자, 한사코 일본이 이를 방해했다.



언더우드 2세 - 원한경 (1)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미국에서 교육학 공부를 마치고 바로 아버지처럼 선교사로 파송되어, 1912년 한국에 들어온다. 연희전문에 있으면서 학교의 기틀을 세우고 있던 때, 1919년 <3.1만세운동>과 <제암리학살사건>이 일어난다. 이 때 원한경은 외신을 통해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고발한다. (2) 일본이 문화탄압정책의 일환으로 한글을 탄압하자, 한국어를 지키고 한국어 학자들을 보호해 주다가, 결국 해외로 추방당한다. 그러나 해방되자마자 곧장 한국으로 들어와 선교활동을 재개한다. 이번엔 6.25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자 그는 세 아들과 함께 자진해서 미군에 입대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한다. 휴전협정 이후에도 부산에서 구호사업을 하다가 1951년 순직. 아버지 원두우, 아들 원일한과 함께, 지금 양화진에 묻혀있다.



언더우드 3세 - 원일한 (1)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그 역시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선교사로 파송 받아, 1939년 한국으로 온다. 1941년 일본이 기독교를 탄압할 때 추방당하자, 바로 미 해군으로 입대해서 태평양전쟁에 참전하고, 해방이 되자마자 재입국한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아버지와 재입대하여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는 늘 말했다고 한다. “내 몸에는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다” (2) 6.25전쟁 후에는, 대전 한남대와 배재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고, 아버지를 뒤이어 연세대 복구사업에 전심을 다한다.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그 실상을 해외에 알리는 일에 앞장섰고, 이 때문에 한국 땅에서 추방당한다. 5공화국이 끝나자, 또 다시 한국에 들어와 2004년 별세할 때까지 연세대학교를 일구는 일에 전념한다. 원일한은 한미관계를 증진하고, 한국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받았다.



언더우드 4세 - 원한광 / 원한석 (1) 원한광은 미국인과 결혼했지만 한국 아이 둘을 입양하여 키운다.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에 힘썼고, 최종적으로 이제 언더우드 가문이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2004년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날 때 그는 말했다. “증조부 언더우드는 한국에 네 가지 소망을 품고 들어오셨다. 기독교 신앙, 서양식 의료와 교육, 그리고 경제발전. 이 모든 것이 한국에 이루어졌다. 우리 언더우드(家)가 한국에서 할 일은 다했다. 한국은 더 이상 외국인이 남아서 일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이 한국을 잘 아는 사람이, 해외로 나가서 한국을 알리는 일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2) 또 다른 언더우드 4세인 피터 언더우드(원한석)는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켜 “우리나라! 우리나라!” 한다. 인종도 피부색도 달라 어찌 보면 영원한 이방인 같을 수 있는데도, 오직 한 가지 이유로 한국을 자기 나라라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

우리 새문안교회를 세운 언더우드 목사님과 4대에 걸친 그의 가문이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라는 파란만장한 격동의 한국역사 속에서도, 이 나라를 사랑하고 섬겼던 모습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사랑하고 섬기라고 맡겨주신, 그 연약하고 꺼져가는 나라 조선, 그 한(恨) 많은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이고,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증오와 미움,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사랑의 영성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변 약한 자들을 돌보고 품어줄 수 있기를, 더 나아가 고통 받는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도 이 사랑 갚아줄 수 있는 새문안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나눔

①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그리스도 찬가(빌2장)/ 성경원어(헬라이어)/ 사도 바울이 각각 어떻게 의미하고 있는지 정리해봅시다. (p.2)

그리스도찬가	모든 권능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
헬라이어	스플랑크노조마이. 출산하는 고통으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마음
사도 바울	기독교의 정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영성, 마음

② 위의 <언더우드家 이야기> 중 나에게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③ 예수님은 무리들을, 언더우드는 한국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일었습니다. 혹시 나는 어떻습니까. 마주하고 생각할 때마다 이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대상이 있습니까. 나누어보고, 또 나의 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과 같은 마음인지도 점검해 봅시다. 아울러, 기도제목으로도 표현해 봅시다.

④ 그 외에 이번 공과가 주는 은혜, 위로, 격려, 혹은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